

전북교육 10년, 성찰·미래 전망

오늘 전주비전대서 전북교육 상상포럼 개최... 3개 교원단체·14개 교육연구회 공동 주최

전북교육 10년을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2022 전북교육 상상포럼'이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전주비전대에서 열린다.

'전북교육 미래를 상상하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북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대표 주종일, 회현초)·전북실천교사모임(대표 황장원, 지사초)·전북

좋은교사운동(대표 최광용, 전주교대부설초)에서 공동 주최하고, 풀뿌리지역교육연구회 등 14개 교육연구회가 함께한다.

이번 전북교육상상포럼은 2022 지방교육자치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북교육정책을 준비하는 첫 자리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

며, 포럼에서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이뤄진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1부 '전북교육 성찰'에서는 사전 설문 조사를 분석하고, 신호등 토론과 현장 토론을 통해 전북교육 10년을 평가한다.

2부 '전북교육 미래 상상'에서는 전북교육 방향에 대한 참여자의 토론과 사전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전북

교육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교육 혁신을 위한 전북교육인들의 '우리의 실천 약속'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 상상포럼은 9월과 12월에 2, 3차 포럼을 열어 민주시민교육, 생명생태교육, 지역교육, 학교혁신 등 구체적인 전북교육 정책을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교육 정책을 도민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로스알라모스研-사이젠텍, 맞손

비파괴 검사기법 개발·장비 국산화 공동 연구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소장 강래형)는 최근 비파괴 검사 업체인 (주)사이젠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사이젠텍은 2014년부터 정밀 계측분석기기의 제조를 시작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업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소가 보유한 비파괴 검사 노하우를 이용해 비파괴 검사 기법 개발과 장비 국산화 연구를 수행한다.

강래형 소장은 "우리 연구소는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이용해 구

조를 파괴하지 않고도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비파괴 검사 업체에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검사 장비를 대체함으로써 국가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는 기계, 전자, 탄소소재 및 스마트 재료, 유연인쇄전자 소재, 3D 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된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외부통제 시스템 강화 전북교육 투명성 회복”

도교육청, 청렴문화 정착 '시민감사관 협의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6일 8층 감사협의회실에서 2021년도 제4회 시민감사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시민감사관 7명과 감사담당공무원 3명 등 10명이 참여, 상반기 시민감사관 실적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년 상반기 실적감사는 지난 4월 19~30일 총 6개 분야에 대해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운동부 인권침해 실태 및 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 관리계획의 효과적 이행 방안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출산 양육지원 정책 이행에 관한 사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통제 시스템 강화로 전북교육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면서 "시민감사관의 실적감사 결과와 제시 의견을 교육현장에 적용해 불합리한 업무나 제도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와 조사,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체육회는 전북체육회관 1층 야외광장에서 법정(특수)법인 기관으로의 새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체육회, 특수법인 기관으로 '재탄생'

안정적 재정 확보·지역실정 맞는 체육 시스템 마련 계기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특수법인 기관으로 재탄생한다. 16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회관 1층 야외광장에서 법정(특수)법인 기관으로의 새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 행정부지사, 송지용 도의회 의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진욱 의원 등을 비롯해 체육인들이 참석했다.

한편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며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법정법인 추진경과보고 ▲제막행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체육회는 이번 법인 전환을 계기로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이다.

정강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나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북 체육이 한국 체육을 대표하고 전북체육회가 전국 최고의 체육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전북체육회는 이번 법인 전환을 계기로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이다.

정강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나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북 체육이 한국 체육을 대표하고 전북체육회가 전국 최고의 체육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제안한다”

천호성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 "내년 예산안에 편성돼야"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제안합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은 1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학부모연합회와 군산 교육사랑하는모임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산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 예산안에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을

편성해 줄 것을 김승환 교육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천 소장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해 보편적 복지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모의 능력이나 처한 환경에 따른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 돼 있다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김세시는 2020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원씩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 소장은 기본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도 설명했다. 2021년 전북 교육예산은 334250억 원이고 이 중 인적지원운용에 필요한 절반 정도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교육복지지원비, 교육일반 및 예비비 등에서 목적사업을 줄이고, 전시장 사업을 폐지하는 등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 자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 /정은성 기자

전주시실공단, 서신지구대 공영주차장 등 2곳 유료화

전주시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오는 7월 1일부터 서신동 서신지구대 옆 공영주차장과 하가지구 리드빌딩 옆 공영주차장 등 2개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운영한다.

주차요금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2급지(주거공업지역) 요금이 적용돼, 최초 30분 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30분 초과 시 15분마다 250원이 추가된다. 단 일일 주차요금 상한선이 있어 하루 최대 4000원까지만 요금을 부과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서신지구대 옆 공영주차장은 28대, 리드빌딩 옆 공영주차장은 23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이들 주차장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돼 오면서 특정 차량의 장기주차 등 공공시설의 사유화 문제도 도심 주차난 해소라는 본연의 공적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공단은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올 7월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 유료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아 왔다. 특히 고가의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신 유인 시스템으로 이들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 가을학기 편입생 모집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가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지원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학년 가을학기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이 과정을 통해 일하면서 탄소융합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라북도 핵심산업인 탄소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수업은 매주 평일 야간 화·수·목요일 3일 간 진행되며,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하다. 탄소물리 및 탄소화학, 탄소소재, 탄소고분자공학과 기술경영 등의 교과목을 배우게 되며, 전라북도 유일하게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탄소공학 학사·석사·박사 모든 과정을 갖추고 있어 이후 연계 학습도 가능하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중소기업 재직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재고용형)이거나 학과 원서 개시일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동시채용형)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합격 후에는 3학년으로 편입해 2년 과정을 이수하면 공학사를 취득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 행정실(공학관 205호/063-220-309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가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지원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학년 가을학기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이 과정을 통해 일하면서 탄소융합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라북도 핵심산업인 탄소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수업은 매주 평일 야간 화·수·목요일 3일 간 진행되며,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하다. 탄소물리 및 탄소화학, 탄소소재, 탄소고분자공학과 기술경영 등의 교과목을 배우게 되며, 전라북도 유일하게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탄소공학 학사·석사·박사 모든 과정을 갖추고 있어 이후 연계 학습도 가능하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중소기업 재직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재고용형)이거나 학과 원서 개시일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동시채용형)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합격 후에는 3학년으로 편입해 2년 과정을 이수하면 공학사를 취득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 행정실(공학관 205호/063-220-309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읽기곤란 학생 지원 교사 연수

전북도교육청이 읽기곤란(난독)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비전컨벤션홀에서 읽기곤란과 중재교육 신청학생 담임(담당)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읽기곤란 학생 및 중재교육에 대한 현장교원의 이해도를 높여 효과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또 기초 음운인식 지도방법 연수를 통해

교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읽기곤란 지도는 언어재활사의 방문 지도뿐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담임(담당)교사의 상시 지도가 병행돼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주요내용은 ▲읽기곤란 학생 진단 및 중재교육 운영 관련 ▲진단기반 활용을 통한 학생 진단 및 관리 방안 안내 ▲단순 한글미해독 학생 구별을 통한 학교 가정 연계 중재교육 방법 ▲예산 사용지침 안내 등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는 16일 전주시장실에서 2021년 6월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로 선정된 박영복 성진여객 기사 등 1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6월의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 11명 표창

전주시, 박영복씨 등에 수여

시민들을 위해 친절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운행해온 기사들이 전주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전주시는 16일 전주시장실에서 2021년 6월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로 선정된 박영복 성진여객 기사 등 1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는 성진여객의 박영복·정정무·한상훈 씨와 전일여객의 이형수·이동현 씨, 제일

여객의 김진배·박성원 씨, 호남고속의 최봉선·임명희·이문국 씨, 시민여객의 최귀천 씨가 선정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내버스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친절·안전기사 선정위원회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들은 각 버스회사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며, 명찰과 함께 엠블럼 패치도 받는다. /김윤상 기자

외국국적 유아 누리과정 교육, 선제적 지원

도교육청,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으로 사회통합 기회 마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외국국적 유아의 누리과정 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외국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통합의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 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통해 외국 유아에 대한 차별 문

제를 해소해 다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외국국적 유아 누리과정 지원 대상(기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제외)은 공립 45명, 사립 49명 등 총 94명이며, 지원예산은 2억 5,100여 만 원이다.

특히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모두 지원하며, 공립유치원은 1인당 156만원, 사립유치원은 1인당 396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2개월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 평등한 보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선제적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외국 국적 유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외국국적 유아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 등 진행 중이다. /정은성 기자